

2017년 하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파키스탄 카라치 출장자료

【 목 차 】

I. 국가일반	01
II. 경제	08
III. 무역 · 투자	16
IV. 비즈니스 참고정보	23
V. 기타 유용한 정보	28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 일반사항

국 명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위 치	인도대륙 북서부위치 동경 61도-76도, 북위 23도-37도 동쪽에 인도, 북서쪽에 아프가니스탄, 서남쪽에 이란, 북서-북동쪽으로 중국, 타지키스탄과 접함.
면 적	796,095 km ² (한반도 면적의 3.6 배)
기 후	아열대 기후로 고온 건조함.
수 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인 구	1억 9,540만 명(2016년 12월 기준, 농촌 1억 1,748만 명, 도시 7,792만 명)
주요도시	카라치(Karachi) 23,500천명 Sindh주도, 상공업도시 라호르(Lahore) 8,647천명 Punjab주도, 공업 교육도시 파이잘라바드(Faisalabad) 2,808천명 Punjab주 소재 섬유도시 라왈핀디(Rawalpindi) 2,377천명 Punjab주 소재 물탄(Multan) 1,928천명 Punjab주 소재 구즈란왈라(Gujranwala) 1,514천명 Punjab주 소재 하이더라바드(Hyderabad) 1,496천명 Sindh주 소재 페샤와르(Peshawar) 1,345천명 북서부 변경지역 소재 퀘타(Quetta) 826천명 Balochistan주 소재 이슬라마바드(Islamabad) 658천명 파키스탄 수도
민족(인종)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힌두족, 터키족, 페르시아족, 아프간족, 아랍족, 모갈족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인도 아리안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종족 간 대립은 심각하지 않으나 경쟁의식과 자아의식이 강하고 지방별 언어 및 풍습이 상이함.
언 어	- 공용어: 우르두어(Urdu), 상용어: 영어 - 공문서는 영어로 작성 - 지역별로 편잡어, 힌디어, 푸쉬트어, 발루치어 등 지방 언어가 있으며, 같은 지방인 들끼리는 지방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 전체 문맹률은 47%에 달함.
종 교	이슬람교 96.28%(수니: 80%, 시아: 20%), 기독교 1.59%, 힌두교 1.6%, 기타 0.53%
건국(독립일)	1947년 8월 14일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국가원수	맘누 후세인(Mamnoon Hussain) 대통령(2013년 9월 8일 취임)
총리(실권자)	샤히드 하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i) 총리(2017년 8월 1일 취임)
입법부	상하양원제(상원 100석/임기6년, 하원 342석/임기5년)
정 당	헌법 개정(2002년 4월)과 2008년 2월 총선을 통해 PPP, PML-N, PML-Q, MMA, MQM 등의 정당에서 의원 배출로 공식 정당활동 보장
정부성향	비동맹 중립, 이슬람온건노선 표방

자료원: Economic Survey, 무역관 조사 종합



□ 경제지표

GDP	2,837억 달러
실질 경제성장률	5.28%
1인당 GDP	1,561 달러
실업률	6.2%
물가상승률	4.1%
화폐단위	파키스탄 루피(Pakistan Rupee, PKR)
환율	1달러 = RS 104.8
외채	564억 달러
외환보유고	214억 달러
회계연도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주의사항) 2017/18 회계연도의 경우,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를 의미)
산업구조	농림축산업 (21.5%), 광산, 자원(2.4%), 일반 제조업(18.5%) 건설 (2.3%), 가스, 전기 서비스(2.0%), 물류.통신(10.2%), 도소매업(17.1%), 금융보험(5.4%), 방위산업, 공공분야(6.3%) 등
교역규모	- 수출 : 219억 3,800만 달러(2016년 7월~2017년 6월, 최신통계 기준) - 수입 : 485억 601만 달러(2016년 7월~2017년 6월, 최신통계 기준)
교역품	- 수출: 면사, 면직물, 의류, 석유제품, 스포츠용품, 카펫, 쌀 등 - 수입: 원유, 식료품, 기계류, 화학, 운송장비, 철강 등

주: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2016/2017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BOI, State Bank of Pakistan, Economic Survey of Pakistan, Trade Development Authority, IMF 종합

□ 한-파키스탄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과학 및 기술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호 협정, 항공협정
교역규모	2017년(11월 누계) 우리나라의 수출액: 9억 1,100만 달러(22.2% 증가) 2017년(11월 누계) 우리나라의 수입액: 2억 9,200만 달러(9.5% 증가)
교역품	-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합성수지, 기계류, 철강, 전자제품 등 -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석유제품, 섬유사, 동제품, 면직물, 가죽, 어류 등
투자교류	대파키스탄 투자(2017년 9월 기준, 누적금액) - 신고: 154건, 신고금액: 3억 9,980만 9,000달러, 송금횟수: 158건, 투자금액: 1억 6,629만 달러
교민	약 400명(주재원, 선교사 등)

자료원: 무역관 조사, KITA, 한국수출입은행, World Trade Atlas 종합



2. 정치 사회 동향

□ 정치 사회 동향

파키스탄은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ZIA-UL-HAQ 대통령 당시 제8차 수정 헌법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총리 및 내각 해임권과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여 대통령 권한 강화 규정을 추가한 바 있다. 대통령의 수상 견제 권한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1990년, 1993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정권마다 수상이 임기 5년을 마치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는 정치적 격동을 겪어 왔다.

이로 인해 수상과 대통령이 서로 권력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불안이 계속되어 왔고, 정책 수행의 불연속성과 국가 위험도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1999년 10월 무혈 쿠데타에 성공한 무샤라프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나와즈 샤리프 수상을 국외로 추방하고 최고 행정수반 통치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정국 운영을 거쳐 2001년 10월, 대통령 직에 올랐으며 2002년 4월 헌법 개정 국민 투표와 11월 의회 선거를 통해 자말리를 총리로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하였으며 2004년 초에는 AZIZ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7년 10월 6일, 의회의 간접 선거로 실시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이 육군참모총장을 겸하고 있는 무샤라프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동 헌법 소원의 판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07년 11월 3일, 전국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헌법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사회 불안이 지속됐다. 2008년 2월 총선이 실시되고 PPP, PML-N 등 야당이 승리, 연정합의에 의한 정부가 구성된 후 2008년 8월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8년간의 철권통치를 해오던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 2008년 9월 6일 의회의 간접 선거로 실시된 대선에서 2007년 암살된 베네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 이하 자르다리)가 전체 702표 중 481표를 얻어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Yusuf Raza Gilani가 수상직을 역임했다.

자르다리 정부는 집권 여당인 PPP정당의 열악한 정치적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MQM 정당과의 연정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며 정국의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MQM 정당 소속 장관들이 내각에서 사퇴하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11년 1월 미국대사관 직원인 레이먼드 데이비스(Technical Staff, 외교관 여권 보유)가 파키스탄인과의 총격전 등으로 현지인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자국 외교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들어 송환을 요구하고, 야당과 무슬림 단체 및 일반 여론은 파키스탄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기도 했다.



파키스탄 내 탈레반의 테러활동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0년 12월 카라치 시내의 경찰수사본부 폭탄 테러, 2011년 3월 ISI 파이잘라바드 지부 차량폭탄테러, 페샤와르 북부 마타니의 장례식장 폭탄테러 등을 자신을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테러로 150명의 학생들이 숨지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최근에는 비교적 후방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파이잘라바드와 카라치도 테러에 직접 노출되는 등 테러공격의 전-후방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 최대 상업도시인 카라치에서는 종족간 정파간 갈등이 뿌리깊어 연일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카라치에는 기존의 신드족(PPP당)과 인도 유민인 모하지르족(MQM당) 간 상권 및 토지소유권 등을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이 계속됐다. 여기에다 대탈레반 군사작전을 피해 북에서 무장세력이 대거 카라치로 이동하여 파슈툰족(탈레반 주력을 이루는 부족) 거주지에 은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파키스탄에서 수시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2013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전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N)가 342석 중에서 여성 및 소수종교 할당 의석을 제외한 272석 중 127석을 확보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이룬 민주적 정권 교체다. 반면 친 이슬람 야당인 테흐리크-에-인사프(PTI)가 34석, 세속주의 여당 파키스탄인민당(PPP)이 31석을 확보하는 데 그치면서 파키스탄 무슬림리그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과의 연정을 통해 압도적인 과반을 확보하여 강력한 정부를 구성했다.

한편, 2013년 9월 8일에는 파키스탄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르다리 대통령의 후임으로 의회에서 전체 702표 중 432표를 얻은 망논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나와즈 샤리프 정부의 구성이 완성됐다.

다만,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로 불리는 자녀의 해외자산 은닉 혐의로 2017년 7월 파키스탄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으며 일단 여당 내에서 샤히드 하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i)가 2018년 총선까지 임시 총리로 선출됐다.



□ 대외 관계

1) 대인도 관계

카슈미르 문제 및 대 인도 관계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파키스탄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카슈미르 지역 주민 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UN, 비동맹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카슈미르 국경 분쟁을 이슈화시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인도와 카슈미르 분쟁은 1998년 핵실험 이후 2002년 말까지도 상호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악화됐으나, 2003년 양국 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해 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동안 끊겼던 항공 운항을 2004년 1월부터 재개했고 2005년 10월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 공동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 추세에도 2008년 11월 인도의 금융/문화 중심지인 뭄바이 폭탄테러로 양국 관계는 다시 복잡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2011년 양국의 통상관련 장관들이 기업인들을 이끌고 상호 방문하는 등 양간의 관계가 급격히 정상화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인도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MFN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1년 말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으며, 과거 인도 상품 1,946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수입 불허 품목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했다. 인도는 1996년 파키스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파키스탄 상품 850개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으나, 파키스탄은 지금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었는데 2011년 말에 변경한 것이다.

2012년 2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상무장관 회의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과 관련 수입이 제한되는 민감 품목 수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254개 제품을 민감 품목에서 제외했다. 2012년 4월 파키스탄 상무장관의 인도 방문 시 인도는 파키스탄의 대인도 투자금지를 해지하기로 했으며, 파키스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9월 인도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비자협정을 체결했다.

2015년 12월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동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2016년 9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의 포격으로 파키스탄군 2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도측은 테러범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으나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경분쟁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현재 인도와의 교역량은 공식적으로 약 17억 달러에 불과하나 상당량이 두바이를 경유해 재포장돼 밀수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공식 교역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의 관계가 점차 개선됨에 따라 파키스탄 산업계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등 인도의 값싼 제품이 밀려올



것으로 관련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파키스탄 수출품목인 섬유제품 및 원료,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등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양국 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파키스탄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파키스탄의 대외교역 규모는 연간 700억 달러임에도 양국 간 오랜 적대관계로 인도와의 교역규모는 2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었다. 양국은 3,000km에 이르는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이 적어 상호 관계가 정상화되면 교역규모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풍부한 지하자원과 상대적으로 앞선 기술력을 가진 인도제품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올 경우 파키스탄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2) 대아프가니스탄 관계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교류 및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들 국가들로의 해상 운송 루트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및 친 파키스탄 정책 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과의 유대 관계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매우 긴밀한 편이다.

3) 대중국 관계

파키스탄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6년 12월 1일 장쩌민 국가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특히 핵개발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평화적 목적)했다.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를 펴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6년 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2006년 11월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답방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양국 간 FTA는 2007년 7월 발효됐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경제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주석 방문 시 파키스탄 과다르항부터 중국 신장에 이르는 3,200km 경제회랑(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광케이블, 항만, 공항, 자유무역지구) 건설에 4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16년 들어 파키스탄에서 동 경제회랑 건설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건설업계가 활기를 나타내고 있다.

4) 대미국 관계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 해결, 인도에 대한 견제, 경제지원 등의 측면에서 대미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 활동, 마약류 단속 노력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9.11 테러 당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경제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제품의 쿼터 추가 확보로 대미국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했다.



2009년 오바마 정권 들어 미국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테러 확산 방지를 위한 압력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척결 정책을 펴갈 것을 공표했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은 군사적 지원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지원도 동시에 요구하며, 2011년까지 200억 달러 이상이 파키스탄에 지원됐다.

2011년 미국 대사관 직원 레이먼드 체포 사건과 미국의 파키스탄 영토 내에서의 오사마 빈라덴 사살작전 감행 등으로 반미 감정이 폭증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그 간에 파키스탄이 대테러 작전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비난하며 양국간의 관계가 긴장관계로 변했다.

2011년 5월 2일에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군사도시 아보타바드에서 미군의 작전에 의해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됐으며, 이를 계기로 기존에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다시 긴장관계에 돌입했다. 또한 파키스탄 군부가 정부의 친미정책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파키스탄 내에서는 군부 쿠데타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1년 11월에는 NATO군에 의한 파키스탄 초소 오폭으로 24명의 파키스탄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에 발생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에 공급되는 군수물자의 통과를 금지하고 미국의 대파키스탄 원조가 대폭 축소되는 등 양국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2012년 7월 오랜 협상 끝에 보급로가 열렸으며 미국의 자금원조가 재개되고 상호 투자협력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교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총선으로 샤리프 총재가 총리직에 복귀함에 따라, 파키스탄-미국 관계 변화 여부가 예상됐다. 샤리프 총리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파키스탄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 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느린 경제성장과 실업, 전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샤리프 총재가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한편 2016년 5월 미군이 탈레반 최고지도자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를 드론(무인공격기)으로 공격하여 사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미국의 드론 공습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서 발생했으며 파키스탄 정부가 이에 대해 자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 거시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경상 GDP	억 달러	2,243	2,312	2,443	2,710	2,837	-
GDP 실질성장률	%	4.4	3.6	4.14	4.24	4.71	5.28
인 구	백만 명	180.7	184.4	188.02	191.71	195.4	199.1
1인당 GDP	달러	1,323	1,368	1,406	1,512	1,467	-
수 입	억 달러	449	404	416	411	403	485
수 출	억 달러	236	247	250	241	219	219
무역수지	억 달러	-213	-157	-166	-170	-183	-266
외환보유고	억 달러	153	110	141	178	230	214
대외부채	억 달러	595	618	474	626	730	564
총 재정적자	% of GDP	6.8	4.6	5.4	3.8	4.4	3.9
소비자물가상승률	%	11.0	7.7	8.34	4.8	2.8	4.1
산업생산증가율	%	13.9	4.5	6.8	3.6	6.8	5.0
환 율(평균)	PKR/달러	88.7	96.5	100.72	101.69	104.75	104.8

주: 파키스탄의 회계 기간은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외환보유고는 회계연도 말 기준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Economic Survey of Pakistan, IMF 종합

□ 주요 경제정책

1) 경제 정책 방향

파키스탄은 만성적인 대외 무역 적자로 인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수출 촉진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을 표방해 중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인근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2018년 중에 터키, 태국과의 FT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설비 수입 관세 인하 및 면제, 수출금융제도 개선, 정부 차원에서의 자국제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도 2008년 이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민영화 성공 사례는 카라치의 발전, 송배전을 통합 운영하는 K-Electric으로 만성적인 적자에서 벗어나 2011년 이후 흑자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사회 인프라 분야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두 해 연속으로 파키스탄 전역에 대 홍수가 발생해 농업 및 산업 생산이 크게 저하됐다. 이로 인해 산업개발을 위해 플랜트, 기계, 설비에 대해 적용하던 일반 판매세 영세율 적용을 2011년 3월 15일자로 폐지하는 한편, 임시 홍수피해 복구세를 소득세에 추가해 부과했다.

지속적인 외환부족에 시달린 파키스탄은 2008년 IMF로부터 76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다. 당초 110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기로 했으나 파키스탄 정부가 IMF 요구조건(재정적자 감축, 세제개편)을 충족하지 못해 2010년 5월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차입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환 조건으로 2012년까지 파키스탄은 25억 달러를 상환했으며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외환사정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2016/17년 회계연도에도 26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파키스탄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10년 이상 지속된 문제로 획기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없이는 단기간 내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파키스탄의 대외부채는 2016/17 회계연도 기준 564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환 보유고(기타 자산 포함)는 214억 달러에 머물러 열악한 외환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외화 부족분은 계속해서 해외 거주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한편 파키스탄은 여전히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력부족으로 인한 예고 없는 정전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의 가정에도 제한송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난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산업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로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구 재원을 통해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즈 샤리프 정부는 2013년 선거 당시 전력난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만큼 북부지역의 수력발전소 증설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2017년까지는 전력공급 관련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못했다.

2) 주요 경제목표

파키스탄 정부는 2016/17년 회계연도 경제성장을 목표를 6.0%로 설정한 바 있다. 2017년 6월까지 약 5.28%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준수한 수치를 나타내면서 최근 4년 연속 4%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달성했다. 2015/16 회계연도에는 최근의 유가 하락에 힘입어 2.8%라는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12 회계연도(11.0%)와 대비하면 경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16/17 회계연도에도 4.1%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2017/18 회계연도에 경제성장률을 6.0%로, 인플레이션 또한 6.0% 이내로 지속 안정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지표 달성목표

주요지표	14/15	15/16	16/17	17/18
GDP 성장률(%)	4.2	5.5	6.5	6.0
물가상승률(CPI)(%)	4.8	6.0	6.0	6.0
해외근로자송금(억 달러)	149	200	170	-
재정적자(GDP 대비, %)	5.3	4.3	4.0	4.1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2. 주요 산업 동향

1) 섬유/패션

□ 산업 개요

섬유산업은 파키스탄 전체 GDP의 8.5%를 차지하며 제조업 고용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다. 인더스 강 유역의 풍부한 면화와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예로부터 섬유산업이 발달해 있다.

파키스탄은 세계 5위의 면화 생산국이며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적능력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1,221개의 조면(ginning) 업체, 124개의 대규모 방적공장과 425개의 소규모 방적공장이 섬유제품을 생산 중이다.

섬유제품은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전체 수출에서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2016/17년 기준 섬유제품 수출규모는 약 125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감소를 나타냈다.

파키스탄 섬유제품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면직물	9,754	13,147	11,803	12,628	13,348	13,139	12,168	9,112
합성섬유	446	608	546	406	383	331	288	167
모직물	137	132	121	122	125	119	98	61
섬유수출 합계	10,337	13,887	12,470	13,156	13,857	13,589	12,553	9,340
전체 수출 중 섬유수출 비중	54	56	53	54	55	57	60	62

자료원: Ministry of Textile

주: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2016/17년은 2017년 3월 누계(최신 통계)

이처럼 제조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섬유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풍부한 원자재, 저렴한 노동력 등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여 파키스탄은 그 동안 중저가 면섬유 제품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 시장 동향

파키스탄 주요 섬유기업으로는 Gul Ahmed Textile Mills, Kohinoor Textile Mills, Chenab Limited, Nishat Mills Limited 등이 꼽힌다. 해당 기업들은 의류, 침구류 등 각종 제품을 생산하며 내수시장 판매는 물론 해외로도 활발히 수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류, 침구류의 경우 현지 섬유시장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다. 주요 기업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의 신규 브랜드를 시즌 별로 출시하면서 판매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시장 전망

신규 투자, 특히 기술개발 및 신규설비 부족으로 인해 파키스탄 섬유산업은 최근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방글라데시 등 인근국가와의 경쟁에서 품질 격차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저하되고 있어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키스탄 정부도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과 세금 인하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생산설비의 현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 생산설비 수입 시 세금 인하를 통해 고급 설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키스탄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력난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진출 전략

우리기업들은 현지 섬유전시회에 참여함으로써 파키스탄 주요 기업들과 접촉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는 섬유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에이전트들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중고기계 구매를 선호하는 현지 섬유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섬유기계류 수출을 타진하는 방안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시회 개최정보

전시회명	CFT Asia(International Clothing Textile, Fabric & Garment Show)
기간	2018년 3월 27~29일(카라치)
장소	카라치(Expo Center)
품목	섬유 전반
홈페이지	www.clothingtextilesfair.com

2) 농수산물 - 농업

□ 산업 개요

파키스탄은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와 연중 온난한 기후 등 우호적인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이 전체 산업의 근간이 되어 왔다. 2015년 기준 농업은 국가 GDP의 24%를 담당하며 전체 고용인구의 47%가 관련 부문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파키스탄에서 농업은 지난 40~50년 동안 연 4%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수자원 부족으로 강우량에 따라 작황의 변동이 크다. 주요 재배작물은 밀, 쌀, 면화, 사탕수수 등이다.

주요 농작물 생산량

연도	면화(천 포)	사탕수수	쌀	옥수수	밀
2008/09	11,819	50,045	6,952	3,593	24,033
2009/10	12,914	49,373	6,883	3,261	23,311
2010/11	11,460	55,309	4,823	3,707	25,214
2011/12	13,595	58,397	6,160	4,338	23,473
2012/13	13,031	63,750	5,536	4,220	24,211
2013/14	12,769	67,460	6,798	4,944	25,979
2014/15	13,960	62,286	7,003	4,937	25,086
2015/16	9,917	65,482	6,801	5,271	25,633
2016/17	10,671	73,607	6,849	6,130	25,750

자료원: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 시장 동향

파키스탄은 농작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 각종 농기계류 수입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산업 특성상 수출 증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낮은 기술력, 전문 농업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

특히 2010년, 2011년에 연속으로 파키스탄 전역에 걸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생산량 저하는 물론 농지 유실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 비료 구입 보조금 지급 등 농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부여해왔다. 2015년 11월에는 추가로 생산량 증대, 인프라 확충, 식품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업 지원대책을 신규 발표했다.

□ 시장 전망

편잡주를 중심으로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노동력 등 천혜의 여건을 보유한 파키스탄 농업부문은 기본적으로 전망이 밝아 보인다. 대부분의 농작물, 과일, 야채가 파키스탄에서 재배 가능하며 정부 또한 전체 생산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특히 고온 건조한 기후 특성상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농업 생산량을 좌우할 관건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관개시설 개선, 저수지 증설 등이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 진출 전략

한국기업들은 현지 농지인수 및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경우 현지 과수농장에 투자하여 유럽 및 중동으로 망고 등 과일을 수출하고 있어 선례가 되고 있다. 최근 국내 모기업이 한국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또한 기술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파키스탄 농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기계 및 신기술을 수출, 전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Agro Tech Asia 등 현지 농업 전시회 참가를 통해 관련 업체들을 접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지 전시회 개최정보

전시회명	Food Technology & Machinery Show(Agri Tech Asia 2018)
기간	2018년 4월 10~12일
장소	카라치(Expo Center)
품목	농산품, 농기계류
홈페이지	www.foodtechnologyasia.com



3) 자동차/운송장비

□ 산업 개요

자동차 제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 특성 상 고도로 집중화된 경향을 나타내며 소수의 조립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 머물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는 특히 자동차 산업/시장이 가격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 시장 동향

파키스탄 자동차 시장은 지난 수 십년간 일본계 기업이 장악해왔다. Toyota, Suzuki, Honda 등 일본기업들은 OEM 방식을 통해 카라치, 라호르에서 승용차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파키스탄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대부분은 일본 브랜드이며 현지 도로에 잠시만 나가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현황

(단위: 대, %)

분류	설비 용량	2015/16	2016/17	증가율
승용차	240,000	179,944	186,936	3.9
소형 상용차	43,900	35,836	24,265	-32.3
지프	5,000	773	3,530	356.7
버스	5,000	1,017	1,118	9.9
트럭	28,500	5,666	7,712	36.1

자료원: Pakistan Automotive Manufacturer Association

승용차의 경우 Toyota의 Corolla(1300~1600CC) 모델이 전체 판매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며 Suzuki의 Mehran(800CC) 이 약 22%, Suzuki Bolan이 약 14%, Suzuki Khyber/Cultus(1000cc) 가 약8%, Suzuki Alto가 약10% 등 소형차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6/17년에는 지프(+356.7%), 트럭(+36.1%) 등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소형 상용차 생산은 32.3% 감소를 나타냈다. 현지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지프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이 활성화되면서 수송용 지프차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시장 전망

점진적인 국민소득 향상, 도시화 등으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당분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전체 판매규모는 약 16만 6,000대로 이는 최대 판매고를 기록했던 2012년에 근접한 수치이다.

최근에는 일본 뿐 아니라 다양한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이 현지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 V사가 현지 조립생산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며 기타 유럽 기업들도 파키스탄 시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역시 2017년 들어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하에 파키스탄 시장 재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지공장 설립 인가를 획득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진출 전략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점유율은 5% 이하에 머물고 있다. 과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파키스탄 현지에서 조립생산을 진행한 바 있으나 2004년 철수했다. 파키스탄 소비자들도 한국 자동차의 품질은 인정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A/S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점유율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향후 파키스탄 자동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충분한 시장분석 후 현지 생산시설 재개, 기술 이전 등을 시행한다면 일본차 외에 새로운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전시회 개최정보

전시회명	Auto, Transport & Logistic Asia 2018
기간	2018년 3월 13~15일
장소	카라치(Expo Center)
품목	자동차, 자동차 용품, 보안 및 시험장비 등
홈페이지	www.autoasia.com.pk

4) 전기/전자 -가전

□ 산업 개요

파키스탄의 가전 산업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과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현지 생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Haier, Orient, PEL, Noble, Aqua Star, LG 전자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들이 현지에서 가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TV,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 전반을 아우른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소비자의 95%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품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동향

현재 파키스탄에는 현지기업뿐 아니라 중국 및 한국기업들도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PEL, Waves, Dawlance 등 현지 가전기업들은 냉장고, 냉동고, 전자레인지 등의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제품 판매 후 3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중국 브랜드로는 Haier이 대표적이며 현지에서 TV,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세탁기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Haier은 현지에서도 선두주자로 꼽힌다.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역시 파키스탄 가전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으며 TV, 에어컨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다만, 냉장고, 냉동고의 경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주요 가전제품 생산현황

(단위: 대, %)

품목	2015/16	2016/17	증가율
냉동고	102,382	127,087	24.1
냉장고	1,477,313	1,812,213	22.7
에어컨	388,509	447,611	15.2
TV	453,205	438,453	-3.3

자료원: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 시장 전망

파키스탄 가전시장은 큰 기복 없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주기적인 교체수요 및 신제품 구매에 따라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중 고온기후가 지속되는 파키스탄의 특성상 현지 가정에는 천장용 선풍기가 필수적으로 구비돼 있다. 또한 냉방용 에어컨, 냉동고 등의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17년에도 파키스탄 내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생산은 일제히 증가를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80%가 TV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대도시 거주가구의 60%는 냉동고,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다. 1억 9,000만에 달하는 파키스탄의 인구를 고려할 때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향후 가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파키스탄에서는 결혼 시즌, 종교휴일 등 특정 시기에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결혼 시 신부측에서 가전제품을 혼수로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드(Eid) 등 종교연휴 기간에는 전반적인 소비수요 진작과 함께 대대적인 할인행사로 인해 냉장고, 냉동고 수요가 특히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 진출 전략

삼성전자, LG전자의 경우 이미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파키스탄 및 중국기업과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은 철저한 가격중심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가격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생산 없이 단순히 제품 수출만을 통해 파키스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은 관세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지 소비자들은 익숙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국제품과의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 생산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지 전시회 개최정보

전시회명	Electrical & Electronic Industrial Exhibition(IEEEF 2018)
기간	2018년 8월 7~9일
장소	카라치(Expo Center)
품목	가전, 전자제품
홈페이지	www.ieeepfair.com



III. 무역·투자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파키스탄 대외 교역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파키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16/17 회계연도 수출은 전년대비 0.2% 감소한 219억 3,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전년대비 20.2% 증가한 485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26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파키스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16/17	21,938	48,506	-26,568
15/16	21,977	40,347	-18,370
14/15	24,132	41,175	-17,043
13/14	25,075	41,630	-16,555
12/13	22,537	41,427	-18,890
11/12	23,641	44,912	-21,271
10/11	24,811	40,414	-15,603
09/10	19,632	31,054	-11,422
08/09	19,120	31,747	-12,627
07/08	20,426	35,396	-14,970
06/07	16,976	30,540	-13,564

자료원: Federal Bureau of Statistics(2017.12월 기준)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은 대외 경제여건 악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이 인하돼 수입물량은 늘어난 반면, 브렉시트(Brexit) 투표 후 폭풍으로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파키스탄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나.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16/17년 수출은 전체 수출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섬유제품이 2.4% 감소한 125억 달러, 석유제품은 8.9% 감소한 4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스포츠용품(+2.2%), 신발(+11.9%), 화학 및 의약품(+5.5%)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16년	2016/17년	
		수출액	증가율
석유제품	12,756	12,453	-2.4
식품 및 농수산물	3,722	3,611	-3.0
석유제품 및 석탄	450	410	-8.9
기타제조업 제품 합계	3,804	3,654	-3.9
- 카펫, 매트	103	93	-9.7
- 스포츠용품(축구공, 글러브)	539	551	2.2
- 가죽제품	487	486	-0.2
- 신발	67	75	11.9
- 수술용 의료기기	423	395	-6.6
- 화학 및 의약품	1,052	1,110	5.5
- 엔지니어링 제품	214	182	-15.0
- 주얼리	7	7	-
- 시멘트	346	242	-30.1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2016/17년 수입은 석유제품이 25.1% 증가한 64억 달러, 기계류는 11.5%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늘어났다. 반면, 비료(-22.1%), 전기기기(-19.8%), 통신장비(-14.8%)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 감소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5/16년	2016/17년	
		수출액	증가율
석유제품	5,098	6,380	25.1
원유	2,570	2,765	7.6
철강	2,094	2,092	-0.1
플라스틱 소재	1,791	1,875	4.7
팜유	1,600	1,784	11.5
기계류	7,097	7,910	11.5
식품	4,600	5,419	17.8
통신장비	1,201	1,023	-14.8
수송기계	1,264	1,774	40.4
전기기기	1,651	1,325	-19.8
철강스크랩	837	969	15.9
발전 기계/장비	1,356	1,620	19.4
항공기, 선박	536	607	13.2
비료	734	572	-22.1
석유제품	856	1,868	118.2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다.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6/17년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는 미국(37억 달러), 중국(16억 달러), 영국(16억 달러), 독일(12억 달러), 아프가니스탄(11억 달러), U.A.E. 두바이(9억 달러) 순이다. 파키스탄의 대한 수출규모는 약 3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17년 미국으로의 수출비중이 16.8%를 나타냈으며, 중국은 7.4%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은 1.5%에 그쳤다.

주요 국가별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

국가	14/15	15/16	16/17	증감률	비중
미국	3,961	3,716	3,683	-0.9	16.8
중국	2,321	1,905	1,624	-14.8	7.4
영국	1,638	1,628	1,620	-0.5	7.4
독일	1,215	1,217	1,237	1.6	5.6
아프가니스탄	1,699	1,230	1,128	-8.3	5.1
U.A.E.(두바이)	1,038	865	934	7.9	4.3
스페인	788	790	803	1.6	3.7
이탈리아	733	642	666	3.7	3.0
네덜란드	557	555	644	15.9	2.9
방글라데시	689	695	623	-10.2	2.8
한국	341	244	330	35.3	1.5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2016/17년 파키스탄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106억 달러), U.A.E. 두바이(54억 달러), 싱가포르(41억 달러), 사우디 아라비아(24억 달러), 미국(21억 달러) 등이다. 2007년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중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점이 돋보인다.

인도(-6.7%), 쿠웨이트(-5.5%)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를 나타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여전히 30.1%에 달하는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U.A.E. 두바이산 수입도 11.1% 늘었다. 한편, 한국제품 수입은 약 6억 5,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국가별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

국가	14/15	15/16	16/17	증감률	비중
중국	7,025	8,127	10,572	30.1	21.8
U.A.E.(두바이)	5,487	4,193	5,389	28.5	11.1
싱가포르	4,050	3,008	4,059	34.9	8.4
사우디아라비아	3,313	2,060	2,409	16.9	5.0
미국	1,197	1,480	2,102	42.0	4.3
일본	1,401	1,398	1,697	21.3	3.5
인도	1,424	1,809	1,688	-6.7	3.5
U.A.E.(푸자이라)	980	1,010	1,339	32.5	2.8
카타르	236	346	1,148	231.9	2.4
쿠웨이트	2,218	1,173	1,109	-5.5	2.3
한국	673	623	648	4.0	1.3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對 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한국과 파키스탄의 교역량은 파키스탄 정정불안으로 인한 상호 인적 교류의 제약, 중국제품의 공격적인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2012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2015년도 파키스탄에 대한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했고 수입은 2억 8,400만 달러로 29.2% 감소했다.

2016년 들어 대 파키스탄 수출이 전년대비 4.9% 증가하면서 8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교역규모 또한 4년 만에 반등을 나타낸 바 있다. 2017년(11월 누계)의 경우 수출이 9억 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 수입은 2억 9,2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를 나타냈다.

무역수지는 2015년 대 파키스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흑자 폭이 2015년 5억 6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무역흑자는 2012년 7,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3년 2억 9,700만 달러, 2014년 3억 6,80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2017년(11월 누계)에도 6억 1,900만 달러의 대 파키스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무역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7 (11월 누계)	1,203	911	22.2	292	9.5	619
2016	1,112	829	4.9	283	-0.5	546
2015	1,074	790	2.6	284	-29.2	505
2014	1,172	770	-6	402	-23	368
2013	1,341	819	-3.3	522	-32.7	297
2012	1,623	847	3.37	776	5.29	71
2011	1,555	818	4.8	737	84.4	81
2010	1,180	780	7	399	4.6	381
2009	1,111	729	-13.1	382	-39.4	347
2008	1,470	839	23.8	631	28.6	208
2007	1,168	678	0.7	490	44	188
2006	1,014	673	1.7	341	8	332
2005	978	662	12	316	12.5	346
2004	870	590	32.1	280	21.3	310
2003	678	447	10.4	231	-13.3	216

자료원: KITA 무역통계, World Trade Atlas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다.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17년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합성수지, 윤활유,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이 있다. 합성수지, 윤활유, 아연괴 및 스크랩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난 반면 의약품 수출은 감소했다.

대(對) 파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6		2017(11월 누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2140	합성수지	78,144	-12.6	100,181	42.1
2	1336	윤활유	69,733	34.4	96,871	55.3
3	7251	건설중장비	55,691	8.3	65,768	30.6
4	2190	기타 석유화학제품	41,871	30.3	50,708	38.7
5	6133	냉연강판	34,524	-0.3	38,473	22.2
6	6261	아연괴 및 스크랩	17,004	41.4	34,555	130.6
7	2262	의약품	58,102	56.9	29,532	-46.2
8	2211	염료	28,390	25.3	27,641	5.2
9	6134	아연도강판	23,796	-22.0	24,351	11.0
10	7461	선박	11,748	31.6	23,225	97.7

자료원: KITA 무역통계

2017년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주요 수입품목은 나프타, 순면직물, 면사, 동괴 및 스크랩 등이다. 특히 동괴 및 스크랩 품목의 수입 증가가 눈길을 끈다.

대(對) 파키스탄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코드 (MTI)	품목명	2016		2017(11월 누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1334	나프타	56,569	111.5	75,893	34.2
2	4331	순면직물	36,480	-33.3	30,560	-9.6
3	4213	면사	37,504	-23.9	28,348	-18.2
4	6221	동괴 및 스크랩	5,439	-65.6	27,170	422.1
5	0157	주류	36,849	65.2	25,760	-27.5
6	3319	기타 가죽	19,579	-11.8	12,620	-29.1
7	4411	편직제 의류	13,224	40.0	12,523	-2.0
8	1290	기타비금속광물	9,346	-24.9	11,521	35.8
9	0451	어육	11,279	-11.8	10,826	5.1
10	4412	직물제 의류	7,597	-25.4	6,954	-2.6

자료원: KITA 무역통계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기업 투자진출 동향

1991년부터 2017년(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직접투자액은 1억 6,629만 달러(154건)를 기록했다. 파키스탄 내 정당간 경쟁 격화, 치안 악화 등으로 인해 해마다 투자금액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파키스탄 투자 진출 현황

(단위: 천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91(누계)	7	5,482	4	4,585
1992	1	500	2	119
1993	0	0	4	1,219
1994	8	11,474	2	1,291
1995	4	6,683	0	0
1996	10	6,272	2	125
1997	4	15,191	3	1,007
1998	0	0	6	8,851
1999	2	68,342	1	9
2000	3	74,292	1	1,633
2001	1	0	0	0
2002	1	500	1	500
2003	1	0	1	0
2004	2	4,569	1	1,633
2005	5	4,918	4	2,251
2006	1	1,000	1	1,000
2007	11	7,133	12	4,459
2008	7	5,875	8	4,263
2009	8	22,779	15	15,067
2010	9	38,841	16	716
2011	10	30,748	21	32,817
2012	9	5,452	12	5,302
2013	15	35,040	10	10,589
2014	10	13,939	10	37,737
2015	10	29,666	12	23,746
2016	7	585	2	16
2017	8	10,527	7	7,361
합 계	154	399,809	158	166,295

자료원: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진출 통계

2010년까지는 총투자규모가 적었으나, 2014년 한 해 동안 약 3,770만 달러의 투자진출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누적 투자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은 49건에 총 투자금액은 약 8,016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나타낸다. 또한, 운수업은 총 투자건수 20건, 금액으로는 1,205만 달러, 건설업은 19건 1,016만 달러이다.



주요 업종별 진출 현황

(단위: 천달러, 건)

업종	총 투자 건수	총 투자 금액	주요 투자진출 기업
제조업	49	80,163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롯데콜손
건설업	19	10,157	삼부토건, 쌍용건설(주)
도 소매업	23	12,965	대우파키스탄 고속도로휴게소
운수업	20	12,045	(삼미)대우파키스탄 고속운수법인
전기, 가스 등	21	50,283	남동발전, 한전 KPS

자료원: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진출 통계

나. 주요 진출기업

회사명	투자 유형	연락처	모기업	업종	제품명	종업원수	진출 시기	소재지
대우파키스탄 고속운수	단독	전화: (92-42)3583-5556 팩스: (92-42)588-4021	삼미	운수업	고속버스 서비스	한국인: 5 현지인: 3500	1998	라호르
대우파키스탄 고속도로휴게소	단독	전화: (92-42)3585-5143 팩스: (92-42)3588-8390	대우	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한국인: 2 현지인: 350	1997	라호르
삼부토건 이슬라마바드 법인	단독	전화: (92-51)2308-465 팩스: (92-51)2308-470	삼부토건	건설업	건설업	한국인: 34 현지인: 1500	1993	이슬라마바드
LG전자 파키스탄	단독	전화: (92-42)3662-2538 팩스: (92-42)3662-2539	LG 전자	판매	전자제품	한국인: 1 현지인: 22	1992	라호르
삼성전자 라호르지사	단독	전화: (92-42)3590-5200	삼성전자	판매	전자제품	한국인: 3 현지인: 20	2003	라호르
현대종합상사 카라치지사	연락사무소	전화: (92-21)3568-5604 팩스: (92-21)3568-2968	현대종합상사	무역업	전품목	한국인: 1 현지인: 4	1983	카라치
포스코대우	연락사무소	전화: (92-42)3576-4073	포스코	무역업	전품목	한국인: 1 현지인: 3	2012	라호르
LS전선	단독	전화: (92-21)3584-4847 팩스: (92-21)3585-3213	LS전선	건설업	초고속 송전로 건설	한국인: 1 현지인: 16	2006	카라치
쌍용건설	합작	전화: (92-21)3524-7887 팩스: (92-21)3524-7888	쌍용건설	건설업	항만 공사	한국인: 7 현지인: 70	2007	카라치
한전KPS	지점	전화: (92-72)361-2336	한전KPS	서비스	발전소 운전정비	한국인: 5 현지인: 26	2009	다하키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M&A	전화: (92-21)3472-6030 팩스: 92-21)3472-6031	롯데케미칼	제조업	PTA (화학)	한국인: 3 현지인: 292	2009	카라치
롯데콜손	합자	전화: (92)111-577-577 팩스: (92-21)3637-4811	롯데제과	제조업	제과	한국인: 2 현지인: 1761	2010	카라치
카네시로	단독	전화: (92-21)3220-5383 팩스: (92-21)3220-5384	금성	제조업	연육	한국인: 3 현지인: 7	2013	카라치

자료원: 무역관 조사



IV. 비즈니스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규모

파키스탄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1억 9,540만, 1인당 GDP 약 1,561달러에 연간 수입시장 규모는 485억 달러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고관세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여 수입 품목의 대부분이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등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필품 중 특히 가전제품 등은 상당부분이 밀수로 들어오거나 여행자 수하물을 통해 시장에 반입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재의 해외제품 의존도는 정규 수입량보다 30% 정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시장 특성

파키스탄 시장의 대표 산업은 섬유산업이다. 섬유산업은 국가 총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총 생산물의 46%, 국내 총생산의 8.5%를 구성하는 최대산업이다 그 이외의 산업은 발달 정도가 미약하여 최근까지만 해도 전형적 프로젝트 시장으로 일반 소비재는 밀수가 주도적이었고 도로,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 설비 확충에 따른 입찰 비즈니스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 핵실험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 및 차관이 크게 줄어들면서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공급자 금융의 BOT 또는 BO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는 원면 및 면방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섬유 계열 산업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동 산업은 국제 섬유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제 섬유 가격 하락으로 2015/16 회계연도 기준 섬유류 수출이 20%를 상회하는 감소를 나타내기도 했다. 산업 및 기업 구조적으로는 정부의 국영 기업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부문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파키스탄의 대기업 그룹은 CRESCENT, NISHAT, HABIB, BIBOJEE, ITTEFAQ, DAWOOD, ADAMJEE 등으로 대부분 섬유 업종이며 친족 간 경영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 면에서의 특성을 보면, 고소득층은 유럽 선진국의 모델과 스타일을 선호하며 결혼식 등 대외적인 행사에는 거액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 남자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영국 등 선진국으로의 유학을 선호하며, 명함에 이력, 학위 등을 나열하는 것을 선호한다.

저소득층에서는 식료품, 의류, 최소한의 가구 등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며 디자인, 스타일 등에 크게 구매 받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색채감각이 풍부 하여 칼라 제품을 선호하며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나 가격에는 대단히 민감하여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구매 시즌이 집중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수 구매 시기는 이드(EID-UL-FITR, EID-UL-AZHA) 등 이슬람 종교 축제일로 해당기간 중 파키스탄인은 옷과 신발을 새로 구입하고 커튼도 교체하는 등 집안을 단장한다.



EID-UL-FITR은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이 종료된 후 3~4일간의 연휴를 의미하며, EID-UL-AZHA는 약 2개월 후에 도래한다. (참고: 2018년 라마단 기간 5월 16일~6월 14일, 잠정)

한편 무역정책 발표 시기인 매년 5~6월경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입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키스탄에서는 공업화 추진으로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 많은 소비재가 밀수나 여행자를 통해 충당되고 있어 가격이 정부의 밀수 방지 및 입국 여행자 검색 정책의 강약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다. 한국 상품 인지도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 시장에서 품질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유럽이나 일본 제품의 대체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대표적 저가 제품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우리 제품 구매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 유통 채널

파키스탄의 수입 상품 유통은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에 이어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경로를 거치게 되며 품목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유통업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도소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주로 상호 간의 신용도에 따라 15일에서 90일까지의 외상 거래에 의존한다.

마. 유망 상품

파키스탄은 세계 4위의 면화 생산국으로 섬유산업이 크게 발달돼 있다. 2010년부터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는 징후를 보이며 수입과 수출이 동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경제 회생 기대감을 주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파키스탄 양 정당 세력 간 정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치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정부 정책은 전통적으로 파키스탄의 전략산업인 섬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여전히 섬유 및 염료 등 원부자재의 수출잠재력은 유망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의 보급률 확대에 따라 해당 부문에 대한 교역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부족 현상 등 고질적인 에너지 문제에 대해 나와즈 샤리프 정부가 임기 내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도 발전, 송배전 프로젝트와 각종 개발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계, 장비,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요령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가격 협상 시 대폭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수입 물품의 하자, 혹은 자국 경제 불안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결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한국 업체들과 상담을 하면 처음부터 독점 에이전트를 제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분야는 아니더라도 물건을 보면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합작을 제의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바이어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대개는 그냥 던져보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서는 곤란하다. 특히 독점 에이전트 임명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입업자들은 자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 신용장에 대한 언더밸류(under value)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중고 의류의 경우 수입 대금의 50%는 T/T로, 나머지 잔금은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T/T 송금 시는 대부분 인근 두바이에 있는 외환 구좌를 통해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비정상적 외환 거래를 훈디 시스템 이라고 한다.

훈디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파키스탄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송금을 하면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하는 것보다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근로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한편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수입 대금의 결제, 기타 외화 반출에 동 시스템이 활용되기도 한다.

파키스탄은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 시장이고 가격경쟁력이 관건인 시장이며 바이어들의 가격 협상 능력이 좋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파키스탄인의 96%가 무슬림으로 가급적 종교에 관한 논쟁이나 농담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자 비즈니스맨은 많지 않으나 여자와 상담할 때 악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은 결례이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인도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인도를 찬미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 시 정장이 바람직하나 현지 기후 여건을 감안, 한여름에는 깨끗한 와이셔츠(긴 팔)에 노타이 차림도 정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지 비즈니스맨들은 반팔 셔츠는 거의 입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인 자리라도 반바지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파키스탄인이 가끔은 악속을 할 때 '인살라'라는 말을 쓰면서 오른손을 자기의 왼편 가슴부분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는데, '인살라'는 좋게 해석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나쁘게 해석하면 흑시라도 악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니(알라신의 뜻이므로) 이해해 달라는 두 가지 의미이다.

대부분의 무슬림 파키스탄 비즈니스맨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편 가슴에 자기의 오른손을 갖다 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의의 표시이다.

회교가 국교이기는 하나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다.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파키스탄의 비즈니스맨은 대개 소위 ‘인덴터’라고 불리는 커미션베이스의 수입업자로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되고 특정 품목의 수입상으로 성장하므로, 상담 시 수입상이 일단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는 아직 자금이 부족하고 자기의 특정한 전문 분야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러한 전문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건으로는 한국으로의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수입업자들이 한국업체에 거래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들은 주로 편잡주 파이잘라바드, 시알코트 등에 위치하면서 한국업체와 교신한 후 한국을 방문하여 기계 등 제품을 직접 보고 계약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한국비자 획득을 위한 초청장을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장 수입업자들의 특징은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척되기도 전에 1-2회의 연락 후에 바로 수십 만 달러 짜리 기계를 구매하겠노라고 하는 등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라. 무역사기 피해 사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기피해 사례로는 인터넷 B2B사이트에서 알게 된 파키스탄 업체로부터 플라스틱 플레이크 등을 구입했다가 사전에 샘플이나 사진으로 보내온 품질과는 전혀 다른 저급의 물건을 선적하고 수출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이다. 이는 주로 거래처의 신뢰도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B2B 사이트를 통한 거래인 경우가 많다.

국내 모 기업이 파키스탄 업자로부터 페플라스틱 원재료를 구매하여 싱가포르에서 인도받았다. 그러나 컨테이너를 개봉해본 결과 사전에 보내온 사진상의 물품과는 전혀 다른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인도된 것을 확인했다. 국내업체는 사전에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재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을 전송 받아 안심하고 있었으나 인도된 물품을 확인하고 나서야 사기 사건임을 인지하게 됐다.

국내업체에서는 사전검사를 실시키 위해 제3의 기업 선정을 제의 하였으나 파키스탄 업체가 여러 가지 핑계로 이를 거부하고 직접 컨테이너에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품을 선적해 보낸 것이다.

파키스탄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카라치 무역관에 동 업체의 실존 여부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3의 공인된 검사업체를 지정하여 물품을 검사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러한 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2012년에는 몇몇 파키스탄 업체가 웹사이트를 그럴싸하게 꾸며 놓은 후 한국업체에 이메일 등을 보내 진짜 바이어로 위장한 후 거래를 하자고 오퍼를 보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경우 일부 한국업체는 사업 진행에 앞서 KOTRA 카라치무역관에 바이어의 신원조회를 요청해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파키스탄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한편 2015년에도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선적 검수를 하지 못하는 허점을 악용해 파키스탄 업체가 정상 제품 대신 불량품을 선적하고 거래 대금을 수취한 경우가 발생했다. 이후 카라치무역관에서 국내기업의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업체 소재지를 방문했으나 이미 잠적하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생소한 파키스탄 업체로부터 사업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급적 카라치무역관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을 거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가. 가격 위주의 구매 패턴

파키스탄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미화 1,560달러 수준으로 가격이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값싼 중국, 동남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파키스탄 바이어의 가격 협상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이다.

나. 정치/사회 불안

1947년 영국으로의 독립 이후 수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 종파간의 갈등 등 국가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정부 정책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파키스탄 북부 국경지역에서 탈레반 등의 무장단체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대한 탈레반 소탕작전이 지속됐다. 한편 각 종족간, 이슬람 분파간 분쟁으로 인해 상호 테러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 열악한 인프라

전력,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가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 낙후된 공업 기술 및 설비로 인한 품질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있다. 파키스탄 경제 중심지인 카라치의 경우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보급된 지역마저도 노후한 수도관 사정으로 수도물이 오염돼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다.

특히 전력 부족은 파키스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일반 가정, 공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 정전이 발생하며 계획정전(load shedding)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잦은 정전과 불안정한 전압으로 인해 전자장비, 기계설비 가동을 위해 별도의 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라. 대금 결제

파키스탄 수입업자들은 자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신용장에 대한 언더밸류(under value) 관행(실제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중고의류의 경우 수입 대금의 50%는 T/T로, 나머지 잔금은 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마. 세금

진출기업들이 법인세, 소비세 등 법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에 물류세 등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교통

버스, 택시 및 릭샤(3륜차) 등이 있으며 버스는 대부분 에어컨 시설이 없고 상태가 불량하여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릭샤도 공해 및 안전상의 문제로 권장할 만한 교통수단은 아니며 가급적 공항에서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목적지와 요금을 협의한 후 이용해야 요금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2017년 들어 파키스탄에도 우버(Uber) 서비스가 도입되어 현지인들과 더불어 일부 외국인들도 이용하고 있다.

2. 전화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 시는 먼저 국가번호(0082)를 누르고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키스탄에서 국제통화 시 수신자 부담(COLLECT CALL)은 불가능하다. 국제전화 시는 통상 2~3회 시도 후 통화가 가능하고 통화 도중에도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시차는 KST 기준 -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인 경우 파키스탄은 20:00 이다.

3. 식수

호텔 등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며 식수는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야 한다. 가급적 양치질도 생수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4. 관광

카라치 시내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관광지는 없으며 카라치 국립박물관이나 파키스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지나 묘소(Mazar-e-Quaid)’는 한 번쯤 가볼만한 명소이다.

5. 환율 : Rs 1 = 약 10원 (US\$ 1 = Rs 104.8)

외부 환전소에서 환전 시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은행과 달리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호텔에서 환전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환전소에 비해 달러당 4~5루피 불리하게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6. 전압

전기 규격은 50Hz, 220V(산업용 440V)이다. 전압이 불안정하여 200~240볼트 범위를 수용하는 제품이 수명이 오래가며 전압에 민감한 전자제품(냉장고, 오디오, 컴퓨터 등)은 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업용은 380볼트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7. 치안

카라치의 치안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차량절도 및 강도사건이 자주 발생하며 간혹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파키스탄은 폭탄 테러 다발 국가로 정치, 종교, 또는 동업자 간의 알력으로 인한 폭탄 테러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시설 및 식당 등 주요 장소에서 검문검색이 빈번하다. 호텔에서든 차량 트렁크 및 엔진후드를 열어보고 차 내부나 밑에 폭발물이 있는지 검사한다. 또한 호텔 및 주요 건물의 출입문에서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핸드백이나 가방도 수색한다.

8. 현지 주요 주재기관 연락처

- KOTRA 카라치 무역관
 - 주소 : Suite 623, 6th Floor, The Forum, G-20, Block-9, Clifton,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30-3771
 - 팩스 : 92-21-3530-3778
 - 위치 : <https://www.google.com/maps/search/The+Forum,+G-20,+Block-9,+Clifton,+Karachi,/@24.8272996,67.0365398,17.75z>
-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Block 13, St. 29, Diplomatic Enclave II, Islamabad, Pakistan
 - 전화 : 92-51)3227-9380
 - 팩스 : 92-51)3227-9391
- 주카라치 분관
 - 주소 : 101, 29th St. Khayaban-e-Mohafiz, DHA, Phase VI,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85-3950
 - 팩스 : 92-21)3534-0054

9.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예 / 아니오 : 하~안 / 네히
- 안녕하세요? : 아살람모 알레꾸 * 아침/오후/저녁 동일
- 감사합니다 : 슈큐리아
- 안녕히 계세요 : 구다 하피즈
- 앉으십시오 : 베드자오
- 미안합니다 : 마프 기재가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 루끼에

10. 한국식당 연락처

- 식당명 : 진고개
- 전화번호 : 92-21)3586-7327
- 장소 : 카라치소재 주요호텔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
- 메뉴 : 한식, 중식 등

<끝>



www.kotra.or.kr